

6.13 지방선거 간호사가 뿔다

간호사 33명 출마

- 광역의원 지역구 5명
- 광역의원 비례 3명
- 기초의원 지역구 11명
- 기초의원 비례 13명
- 국회의원 재선거 1명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간호사 32명이 출마하며,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간호사 1명이 출마한다.

광역의회(시·도의회) 의원 후보로 지역구 5명 및 비례대표 3명, 기초의회(구·시·군의회) 의원 후보로 지역구 11명 및 비례대표 13명이 출마한다.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후보 출마자는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24~25일 간호사 32명이 지방선거 후보로, 간호사 1명이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을 마친 간호사들의 출마 분야, 선거구, 소속정당은 (표)와 같다.

한편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및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는 간호사 34명이 출마해 22명이 당선된 바 있다.

주혜진·최수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해 단체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매체에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소속 회원을 알릴 때는 동정 수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 후보들의 약력, 출마의 변, 공약 등을 게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마분야	성명	선거구	소속정당
시·도의원 (지역구)	구경민	부산 기장군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홍선이	대구 달서구제3선거구	무소속
	원미정	경기 안산시제8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심지연	충남 아산시제4선거구	자유한국당
시·도의원 (비례대표)	남영숙	경북 상주시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이원향	부산	바른미래당
구·시·군의원 (지역구)	김영희	경기	자유한국당
	김은숙	경북	정의당
	이순영	서울 동대문구가선거구	자유한국당
	강미영	서울 강서구바선거구	자유한국당
	임춘희	서울 강동구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성경미	부산 기장군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곡지	대구 동구나선거구	자유한국당
	박미정	광주 동구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경기 수원시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규화	경기 이천시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남주	충남 천안시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남영	충남 계룡시가선거구	자유한국당
	조성미	충남 홍성군나선거구	바른미래당
	한경혜	서울 강동구	더불어민주당
반미선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김미화	광주 동구	민중당
	최옥술	대전 유성구	더불어민주당
	권남금	경기 수원시	바른미래당
	이미숙	경기 부천시	정의당
	이해림	경기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경기 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유경일	충북 제천시	자유한국당
	유재동	전북 익산시	정의당
	이은주	전북 완주군	더불어민주당
	박유정	전남 목포시	정의당
국회의원 재선거	김수현	경남 창원시	정의당
	변은혜	서울 송파구	민중당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내년 본격 도입

3차 시범사업 올해 7월부터 실시
가정방문형 및 주야간보호통합형 운영

올해 7월부터 제3차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30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 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사 등이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수급자가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차 시범사업은 2016년 7~12월 30개 기관에서 300명, 2차 시범사업은 2017년 3~8월 36개 기관에서 360명이 참여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가정방문형과 주야간보호통합형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했다. 가정방문형 20곳과 주야간보호통

합형 10곳 등 30개 기관이 참여한다. 수급자 수도 700명으로 기존보다 2배 정도 확대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해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를 하루에 여러 번 찾아가 방문간호(건강관리)와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 및 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와 재활을 돕는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3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전남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정명숙)에서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이옥경)에서 참여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받거나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거나, 전화로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다. 시범사업 후 분사업의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 서비스 별도) 정도 소요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 정도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음주·영양·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해 매월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세분화됐다.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일반건강관리는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이다.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주혜진 기자 hjoo@

PLAN YOUR STORY™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완성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간호해야 한다는 직업적 사명감으로 늘 자신보다 다른 이를 먼저 보살피는 간호사이지만, 그 삶 또한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푸르덴셜생명의 라이프플래너®는 간호사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특별한 솔루션을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준비, 푸르덴셜생명의 라이프플래너®가 함께 하겠습니다.

준법감사인확인필-SM-1803003-3